

선한 양심 지키기

성경말씀: 딤후1:18-19

세월호 사건: “믿는 사람들도 다 같아!”, “아니야 믿는 사람들이 더해!”

구원의 목적: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런데 그 영원은 구원받은 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영원한 보상을 결정한다(고전3). 심각하게 느끼고 살아야 한다.

바울이 죽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첫째 감독 즉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준 책무: 대언이 있던 시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18)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이 있어야 썩은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악한 썩이 아니라 선한 싸움(딤후4:7-8)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산할 확률이 크다(19). 자기도 파산하고 남들도 파산시킨다.

이 파산은 목숨을 잃는 것일 수도 있다(20; 고전5:5, 요일5:16-17). 즉 구원받은 자라도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산하여 사망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신성모독을 할 수 없게 된다.

요즘 세월호 사건, 유병언과 그 일기들의 행태, 선한 양심이 없다(현금 강요, 재산 축적, 불법 비리).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큰 수치를 당하고 있다.

구원 얼마나 좋은 것인가? 좋게 시작했다가 악하게 끝나면 참으로 큰 수치가 아니겠는가?

믿음의 파선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불법의 죄, 비밀의 죄, 악한 행동이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면서부터 후메네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딤후2:16-18). 궤양과 같이 파고들

알렉산더: 여러 명, 구리세공업자(딤후4:14), 바울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교회가 믿음만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엡2:8-10).

그래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성장시키는 사역이 교회의 주된 임무여야 한다(엡4:11-13).

오늘은 위어스비의 <양심>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선한 양심 지키기>, 양심, 양심의 효과, 선한 양심, 악한 양심, 양심 지키는 방법 등을 살펴보려 한다.

양심

양심(conscience): ‘con’ 함께, ‘science’ 안다. 그러므로 ‘함께 안다’는 뜻, ‘우리와 함께 아는 것’

나쁜 일을 하면 마음에 고통이 느껴진다. 이처럼 양심은 우리와 함께 아는 것이다.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즉각 나타난 기능이다(옷 벗음의 수치).

양심은 법규나 표준이 아니며 그것들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표준이 중요하다.

인디언 부족의 습관: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산 채로 매장하는 것

인디언에게는 그것이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국인에게는 양심에 문제가 됨

그러므로 올바른 표준이 있어야 양심이 제대로 작동한다.

I. 양심에 대한 서술

A. 사도 바울(롬2:14-15)

1.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였다.
2. 우리 마음에는 법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재판관, 증인이 있다. 양심은 증이이요, 재판관이다.
3. 어려서 법을 알지 못해도 잘못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양심 증인, 재판관 때문이다.

B. 예수님(마6:22-23)

1. 양심은 창문과 같다. 창문이 깨끗하면 빛이 들어와 율법의 모든 것을 잘 보게 해 준다.
2. 더러우면 빛이 조금만 들어오므로 잘 보이지 않는다.
3. 그러면 빛이 어둠이 되고 만다. 이런 창문은 ‘악한 양심’이라고 한다.
4. 창문은 악한 행동을 통해 더러워진다. 그래서 같은 죄를 자꾸 지으면 양심이 마비가 된다.
5. 연쇄 살인범, 유병언 일가

C. 이런 양심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다.

D. 왜 어떤 성도들은 더 분별력이 많은가? 왜 어떤 성도들은 갈 곳, 볼 것, 들을 것, 할 것을 잘 아는가?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E. 사실 양심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종이다.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계기판과 같다. 엔진 오일, 냉각수가 부족하면 경고등이 켜진다, 이것을 무시하면 차가 망가진다.

F. 사람의 경우 구원받기 전에는 양심이 일정 부분 더럽혀져 있다(딤후1:15).

1.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며 예민해진다(롬9:1). 딤후1:5 설명
2.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표준이 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망가지기 시작한다. 끝에는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까지 생긴다.
3. 이런 양심은 인두로 지진 양심이다(딤후4:1-2).
4.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우리를 구원할 만한 선한 행위나 선함은 없어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 수 있게 해 줄 선한 양심은 반드시 존재한다.

II. 선한 양심

A. 선한 양심의 효과

1. 하나님께 반응하여 구원받고 심지어 침례로 인도한다(벧전3:21).
2. 행위를 지도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행24:15-16), 스스로 힘을 써야 한다.
3. 기도를 돕는다: 요한의 고백(요일3:18-22)
4. 양심은 인격을 성숙하게 한다(히5:13-14). 즉 양심은 영적인 감각이다. 고무줄의 특징; 늘었다 줄었다 한다. 그런데 오래 두어 굳어지면 그 작용을 못한다.
5. 양심은 모든 일에서 선하게 행동하게 한다(히13:18).

B. 선한 양심은 훈련으로 유지된다.

1. 히5:13: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III. 악한 양심

A. 악한 양심은 선한 양심과 반대가 된다.

B. 악을 행하면 담대함을 주고 선을 행하면 가책을 준다.

1. 사5:20-21
2. 빌3:19

C. 특징

1. 죄를 장난으로 여긴다(삼하2:12-16), 이스보셋, 아브넬, 다윗, 요압, 기브온, 12명씩 겨루게 함. 상대의 머리를 붙잡고 옆구리를 찌르게 함. 모두 죽음
2. 고백과 회개가 부실하다.
3. 평판에만 신경을 쓴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아무렇게나 한다. 위선
4. 명백한 진리에 대항한다. 창조, 하나님의 말씀 보존
5. 소유자: 사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겸손함),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 노릇을 함, 아말렉을 멸절시키지 않음, 다윗과 사무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함, 결국 자살하게 됨

D. 악한 양심이 생기는 이유: 죄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죄가 없다고 한다.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된다고 한다.

1. 요일1:6, 8, 10

D. 해결책 요일1:9, 고장 난 계기판은 고치면 된다.

자기를 낮추고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다윗의 고백, 시51)
히(9:14; 10:22)

IV. 결론

A. 선한 양심을 붙들지 않으면 믿음에서 파선한다.

B. 보상이 없다.